

謹 弔

송인영 박사 (1965年-2013年)
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회원 일동

追 慕

—故 송인영 博士(서울大)를 追慕함—

金喆洙 (시인, 전주대 교수)

오늘 불현듯
신새벽 낮은 바람에
웃기를 여미었다.

꽃잎 떨어진 자리
푸르게 아물리던 햇살
우울한 대기 속으로
숨어버린 날,

웃는 표정
급게 살아오던
그 맑은 얼굴

거센 발음
한 마디 없던
그 살가운 말투

따뜻한 차(茶) 한 잔
다사료이 건네던
그 얹전한 손 끝.

그 모든 것 지고 난 후
종일 흐느끼는
빗줄기 사이로

허(虛)한 한기(寒氣)만
하염없이 주룩주룩
흘러내린다.